

서재에 관한 변명

책을 보관하지 않을 이유

한용환

동국대 교수·국문학

사람이란 나름대로의 형편과 처지에 적응하며 살아가게 마련인가 보다. 그 나이가 되도록 뭘하고 있었기에 여전히 낡고 비좁은 아파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느냐고 주위에서는 더러 딱하다는 눈빛을 보내오곤 하지만, 그런 시선 때문에 정작 내가 부끄러움이나 당혹스러움의 감정에 사로잡혀본 적은 없다.

말보다도 덩치가 큰 아이가 들썩이나 되는 가족이 안락하게 살기에 삼십여평의 아파트가 만족스런 주거공간이 못된다는 사실 썩이야 나라고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매사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나와 나의 가족은 이만도 못한 주거환경에서도 별 탈없이 잘 지냈었다. 그리고 서울 시민 중 자가보유자의 비율이 5할을 웃돌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실이나 기억을 떠올려내면서도 여전히 내가 현재의 내 처지에 불평불만을 일삼는다면 필경 나는 다음 둘 중의 한 쪽-분수를 못 헤아리는 사람이거나 염치를 모르는 사람 중의 하나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방 세계짜리의 아파트가 능력 많고 재주 좋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못견딜 만큼 불편스런 주거공간도 아니다. 사내와 계집아이에게 각기 방을 하나씩 주고도 나와 아내는 그리 좁지 않은 안방을 차지할 수 있다.

널찍한 거실도 있다. 쓸데없는 가구나 심지어 소파조차 추방해버린 우리 집의 거실은 같은 규모의 다른 집의 거실에 비해 배는 넓을 것이다.

남들의 동정 섞인 눈빛에도 시종 의연해하는 까닭이 이만하면 납득되고도 남을 터이다.

서재 없이 사는 '엔터리'

하지만 난감스런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어쩌다 찾아온 사람이 서재를 좀 구경시켜달라고 부탁할 때 나는 더 이상 태연할 수도 의연할 수도 없게 된다. 눈치없게도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이 원망스럽고 야속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무슨 일로 먹고 사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명색이 대학의 교수라는

사람이 설마 서재도 없이 사는 엔터리이라고는 그가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책을 꼭 읽어야 하거나 보관해야 할 필요가 그다지 많아보이지 않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집에는 번듯한 서재를 모두들 갖추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설령 내가 서재를 가질 수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벽을 온통 둘러쌀 만큼의 서가 따위를 마련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그때그때 구해다 읽으면 되고 읽고 난 책의 용도는 그로써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읽은 책을 그처럼 소중하게 보관해야 할 이유가 내게는 납득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비단 서재뿐만이 아니다. 나는 집에 변변히 값이 나가는 책 한 권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사정이 이 모양이니 진기한 책과 고가의 책도 더러는 끼인 그럴듯한 서가라도 기대했던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표정이 어떤 것일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들은 필경 당혹스러움에 사로잡힐 터이고 내심 한심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며 중국에는 속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터이다.

그렇더라도 나로서는 하는 수 없는 일이다. 유구무언, 내세울 만한 무슨 변명의 말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인가.

다만 그들의 눈에 내 처지가 딱하고 한심하게 비칠지라도 나 자신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불편을 느끼지는 않고 산다는 사실만은 밝히고 싶다.

나라고해서 왜 서재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겠는가. 아내의 잔소리나 아이들의 소란으로부터 의연히 해방되어 혼자만의 안락한 공간에서 책을 읽고 원고도 쓰며 더러는 공상에도 잠겨볼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 것인가.

그러나 애초에 내게 허락되지 않을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불평과 불만에나 사로잡혀 산다고 해서 무슨 소득이 생길 것인가.

최고의 독서공간은 '화장실'

무엇보다도 서재가 없다는 사실이 책임기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평소 나는 생각하고 있다.

재미있는 책이만 하다면 거실의 벽에 비스듬히 베개를 받쳐 베고 누워서 읽는들 어떻고, 스탠드를 머리맡에 켜고 잠자리에 들어 읽는들 또 어떻단 말인가. 사실을 말하자면 최고의 이상적인 독서의 공간은 서재가 아닐지도 모른다.



읽으면 되고 읽고난 책의 용도는 그로써 다하는 것이 아닌가.

흔히들 재물을 탐하는 마음은 표면에 드러내지 않으려 하면서도 책을 욕심내는 일은 숨기려 하지 않는다. 숨기려 하기는 커녕 도리어 자랑삼는 경우가 더욱 흔하다. 그러나 내게는 그 두 가지 욕심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번 읽은 책을 그처럼 소중하게 보관해야 할 필요나 이유가 내게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기야 이 모든 주장들이 단지 제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 동원하는 억지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 언젠가 내게도 서재가 마련되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나는 지금

내세우는 생각들을 즉각 거둬들이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책이 가장 재미있게 읽히는 장소나 공간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 나는 그곳은 단연 화장실이라고 생각한다.

변기 위에 턱하니 걸터앉아 펼쳐드는 책은 제아무리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내용일지라도 결코 지루하지 않은 법이다. 책을 보관하는 문제에 관해 말하자 해도 그렇다. 설령 내가 서재를 가질 수 있었다하더라도 나는 벽을 온통 둘러쌀 만큼의 서가 따위를 마련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그처럼 엄청난 규모의 서가가 왜 필요하던 말인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그때그때 구해다